

“대학평가인증-국가장학금 연계 소규모 대학에 불합리, 폐지해야”

대교협, 교육부에 정책개선 건의 “개정된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전국대학총장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과 연계하는 정책 등이 소규모 대학에 불합리하다며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대교협은 “대학에 대한 이같은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재정진단을 모두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통과한 대학만 일반재정과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막히게 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편입학 정원 여석의 산정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된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4대 요건(교지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에서 교지확보율을 뺀 3대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정 기준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대교협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에서 소규모 대학 특

성과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및 컨설팅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지표 중에서는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밖에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평가 반영 제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에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조정 등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민 2명 중 1명 “70세는 돼야 노인”

‘2024 서울서베이’ 결과 응답자 88% ‘정년연장에 동의’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은 70.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87.8%가 정년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4 서울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인식과 삶의 질, 생활상, 가치관 등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 생각하는 나이는 70.2세였으며 2명 중 1명에 이르는 51.7%가 70~74세를 노인이

라 답했다. 65세 이상 응답자는 노인 기준연령을 72.3세라고 답해 65세 미만 69.8세보다 2.5세 더 높았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질문에도 ‘동의’ 응답이 87.8%로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가 가장 많았고, 은퇴 후 걱정 될 생활비 질문에는 ‘250만원 이상’이 절반이 넘는 53.3%로 2023년 47.1%, 2022년 45.6% 대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은 ‘손자녀 양육’(33.5%)이 아닌 취미·교양활동(78.8%)이나 ‘소득창출’(70.3%) 답변이 많았고, 자녀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자녀들과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사는 것(64.8%)’을 원하고 있었다. /이현진 기자

수험생 61% “의대 증원시, 도전 하고파”

고교생·N수생·학부모 543명 설문

지금껏 의과대학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수험생 10명 중 6명은 의대 정원 증원시 의대 입시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수험생·학부모 10명 중 8명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입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대 모집 정원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생·N수생·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7.7%가 ‘의대 정원 미확정으로 입시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의대 모집정원이 증원되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몰리며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다른 전공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수험생·학부모의 94.8%는 ‘의대 모집정원 조

정 변수가 합격선과 경쟁률 등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고, 77.7%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또는 축소가 향후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다고 응답했다.

같은 맥락으로, 현재 의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 중 의대 정원 확대할 경우, 의대를 지원하는 방향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경우도 61.1%에 달했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53.5%를 차지하며 과반수를 넘었고, 찬성하는 의견은 27.1%에 그쳤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입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68.3%에 달해, 의대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진학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3.4%는 의대 모집정원은 당초 발표대로 5038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누르면 경고음’ 초등학생 안심벨 보급

서울시, 1·2학년 11만명 대상 25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신청접수

서울시가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급 상황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5월 초부터 각 학교로 순차 배송되며, 학생들에게 안심벨을 배부할 때 비상시 사용법,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각 초등학교를 통해서 보급되기 때문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요청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농업·바이오식품 연구 나서

중 베이징농림과학원과 연구 협력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베이징농림과학원(원장 엔지에)과 ‘농업·바이오 및 식품과학기술 공동 실험실’을 설립하고, 농업·바이오식품 분야 연구 협력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8일 베이징농림과학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과 엔지에 베이징농림과학원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양 기관은 농업과 바이오식품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성신여대와 베이징농림과학원은 이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오른쪽)과 엔지에 베이징농림과학원 원장이 ‘농업·바이오 및 식품과학기술 공동 실험실’ 현판식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성신여대

번 공동 실험실 설립을 시작으로 ▲농업 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후변화 대응 작물 연구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5 | 해질 / 19:03

4월 10일 (목) 음력 : 3월 13일

수도권 날씨 9~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5/20, 동두천 6/21, 가평 6/20, 백령도 6/14, 파주 4/20, 서울 9/20, 양평 9/20, 인천 9/16, 수원 8/18, 용인 8/18, 평택 8/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석탄 발전으로 AI 붐”...폐쇄하려던 발전소 계속 가동 /사진 뉴스
▲트럼프 “이제 우리가 갈취할 차례...협상시까지 중국에 104% 관세”

▲관세 전쟁에 ‘국난’ 선언한 일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검토
▲TSMC, 中 화웨이에 칩 우회 판매...美 벌금 10억달러 위기

▲유엔총장 “킬링필드 된 가자지구...이스라엘 원조 통제계획 반대”
▲아라치 이란 외무 “오만서 美와 이란 핵 간접 회담 열 것”